

<보고서>

공무 외 국외 자유편수 보고서

하와이 안내서 (인문환경과 자연환경)

2017년 7월27일- 8월14일

푸른솔초등학교 (직급) 교사 (성명) 류제열

공무 외 국외 자율연수 개요

1. 연수주제 :

2. 연 수 국 : 하와이(미국)

3. 연수일정 : 2017년 7월 27일~ 8월 14 일 (19일간)

4. 연수 중 방문지

하와이 섬(빅아일랜드) : 하와이 불케이노스 국립공원, 코나 커피 벨트

마우이섬 : 할레아칼라 국립공원, 여러 비치파크

오아후섬 : 왕궁, 폴리네시아 문화 센터, 다이아몬드헤드 화산

5. 주요활동

하와이섬, 마우이섬 ~ 화산 국립공원과 주립공원들을 방문하여 화산과 지질활동 체험 자료 수집,

마우이섬, 오아후섬 ~ 비치파크(해안공원)에서 여가활동 안내 자료 수집. 왕궁을 방문하여 하와이의 국권 침탈 과정 학습.

6. 연수의 효과

화산으로 인하여 생겨난 다양한 지형들을 체험하고 최근 시기를 거쳐 현재에도 진행 중인 화산 활동에 대해 학습함.

하와이의 생활 모습과 미국에 의한 식민지화에 대해 학습함.

하와이에서 할 수 있는 여가 활동에 대한 교수학습 자료를 수집함.

< 차례 >

1. 하와이, Did U Know?	
하와이 제도	2
하와이 간단 역사	4
하와이의 기후와 관광	5
2. 하와이에서 어떻게 먹을까요?	
하와이의 음식	6
맛있는 음식점	8
3. 하와이 화산 국립공원	
활화산 관측 - 킬라우에아 화산 할레마우마우 분화구	9
용암 관측 - 칼라파나 전망 구역	11
화산 정상에서 일출, 별관측	
4. 마우나케아 산, 할레아칼라 국립공원	
마우나 케아 산	13
할레아칼라 국립공원	14
5. 바다와 함께	
비치파크와 호텔비치 활용	16
서핑 강습	17

1. 하와이, Did U Kn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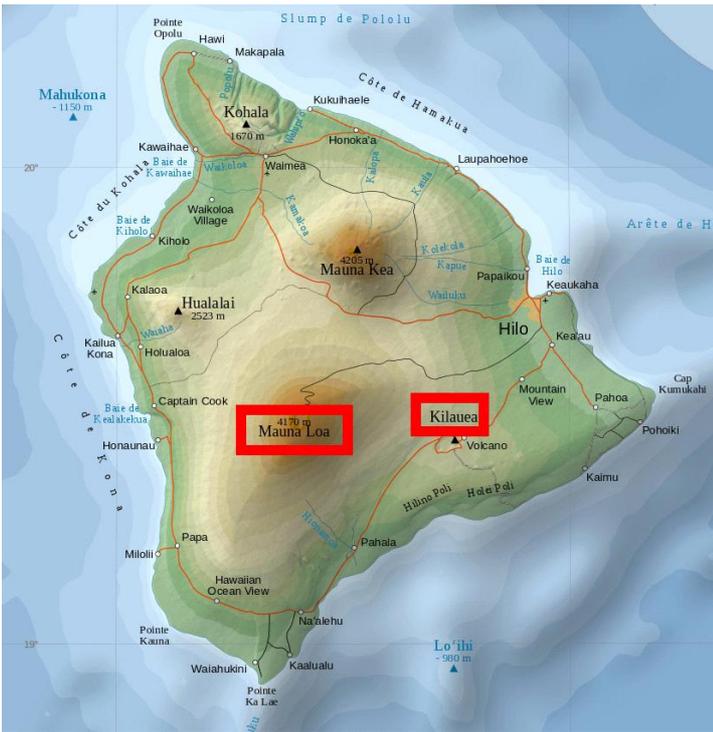
■ 하와이 제도



하와이는 주요한 섬 8개 전체를 부르는 말입니다. 관광객들은 주로 비교적 큰 네 개의 섬인 카우아이, 오아후, 마우이, 하와이로 여행합니다. 이 중 하와이 섬은 제도 전체에서 가장 큰 섬으로서 하와이 제도의 이름이 되었기 때문에 혼동을 피하기 위해 빅 아일랜드라고 부릅니다.

현재 경제와 관광의 중심지는 오아후 섬이며 보통 하와이라고 할 때 머리 속에 떠올리는 모습을 가진 곳입니다. 섬 크기는 세 번째이지만 하와이 전체 인구의 2/3가 살고 있으며 주도인 호놀룰루, 와이키키 해변, 태평양전쟁의 시작을 알린 진주만 공습을 받았던 진주만(Perl Harbor)가 있는 곳입니다. 스노클링의 명소 하나우마베이, 겨울철이면 6~10m의 파도가 일어 전 세계에서 서퍼들이 모여드는 노스 쇼어(North shore)도 이 섬의 북쪽입니다. 노스 쇼어는 서핑 영화 영화 ‘폭풍 속으로’의 무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오바마의 고향

섬이기도 합니다.



빅 아일랜드로 불리는 하와이섬은 제주도의 약 6배 정도로 가장 면적이 크지만 화산에 의한 활발한 지질 활동이 최근까지 진행되었고 현재에도 용암이 꾸준히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낮고 황량한 풍경으로 인해 여타의 관광지들과 다른 독특한 느낌을 줍니다.

섬의 남쪽 마우나로아 산은 활화산으로 꾸준히 용암을 분출하여 새로운 용암대지를 만듭니다. 마우나로아 산 남쪽의 킬라우에아 산 역시

▲ 하와이 섬 활화산으로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서

실제 진행 중인 용암활동을 직접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마우이 섬은 2016년 개봉한 월트디즈니의 애니메이션 모아나에서 반인반신으로 나왔던 마우이를 연상시킵니다. 실제 마우이는 폴리네시아 전설 속 반인반신으로서 할레아칼라 산 정상에서 태양을 붙잡아 위협하고 담판을 지어 느리게 가도록 하여 작물이 자라기에 충분한 일조량을 만들어 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섬 모양도 어쩐지 사람의 상반신과 닮았습니다. 하와이 왕조의 전통적인 수도였던 라하이아 시가 있으며 파이아, 마카와우 등 서부 시대의 옛 모습을 간직한 올드타운이 유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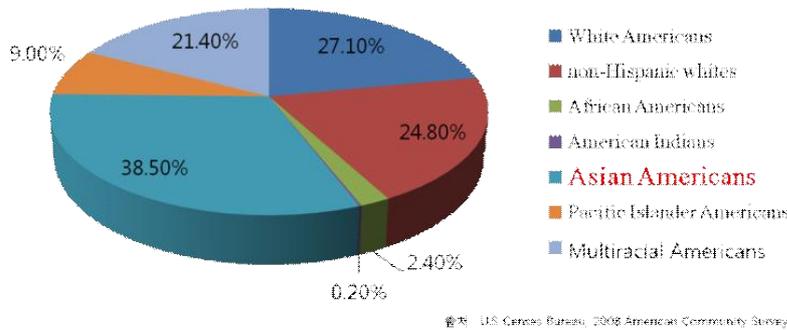
※ 마우이 신화에 대해 재미있게 소개해 놓은 사이트는 [\[이곳\]](#)

제도 가장 서쪽의 카우아이 섬은 하와이에서 가장 오래 전에(6백만년 전) 화산활동이 멈춘 섬으로 계곡, 하천, 폭포가 장관을 이루고 섬 중앙의 거대한 카와이키니 산에서 흘러내린 빗물로 섬 전체가 울창한 삼림입니다. 하와이 통일 왕국에 가장 마지막까지 저항하여 1810년에 비로소 하와이에 복속되었고 섬 전체 면적의 3%인 주거, 상업면적 이외에는 농지와 자

연보호구역으로 묶여 신비로운 정원의 느낌을 주는 섬입니다.

■ 하와이 간단 역사

원래 폴리네시아인들이 살던 땅으로 하와이 섬 출신의 카메하메하 왕이 1810년 카우아이 섬을 마지막으로 현재와 같은 하와이제도를 통일하여 카메하메하 1세가 됩니다. 유럽과의 교류가 활발하였으며 1840년 헌법을 채택하고 의회를 구성하여 입헌군주국으로 인정을 받았고 현재에도 존경받는 국왕 카메하메하 3세 이후 세계 여러 곳에서 이민자를 받아들였고 대규모의 사탕수수과 파인애플 플랜테이션 산업이 경제의 중심이 됩니다. 이때의 이민자가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포르투갈, 필리핀, 조선인들이었고 지금도 아시아계가 인구의 39% 정도를 차지하며 순수 백인이 27% 정도로 오히려 소수입니다.



1891년 마지막 여왕 릴리우오칼라니는 하와이에서 이민자, 특히 미국의 대규모 플랜테이션 산업 관련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우려하여 농장 국영화 법률을 만들었는데 이에 위협을 느낀 사탕수수 상인으로 대표되는 미국인들은 미국 해군의 힘을 업고 여왕을 폐위, 왕국을 멸망시키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공화국을 선포하여 미국에 병합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반 제국주의자였던 24대 미국대통령 클리블랜드는 이를 거부하고 여왕의 복귀를 강요했지만 쿠데타에 참여한 미국인과 유럽인들은 응하지 않고 하와이 공화국 대통령을 선출, 미국과 합병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클리블랜드 다음 대통령 매킨리는 제국주의자였고 1898년 하와이를 병합합니다. 이러한 비극의 역사는 호놀룰루에 있는 이올라니 왕궁에서 오디오 투어를 진행하며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국권 상실 역사와 비견하여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하와이는 1959년 8월 21일 미국의 50번째 주로 편입되어 자치를 보장받지만 현재 미국에서 다소 독자적인 문화를 가진 곳이 되었습니다. 섬의 특성상 폐쇄성이 강하고 외지인에 대한 차별이 강하게 존재하지만 다수인 아시안계를 중심으로 여러 인종과 문화가 혼합되어 있어서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은 거의 없습니다. 오랫동안 백인이 기득권을 차지하며 아시안계와 원주민계를 착취하였지만 현재는 기득권을 상실하여 미국의 다른 지역과는 반대로 오히려 백인에 대한 심정적 차별이 존재하는 독특한 곳입니다.

■ 하와이의 기후, 관광

겨울(우기, 10~4월)의 평균 기온 27도, 여름(건기, 5월~9월) 평균 기온이 31도로 차이가 4도에 불과합니다. 대신 작은 섬이지만 높은 산을 사이에 둔 지역 간의 기후 차이가 큼니다. 예를 들자면 빅 아일랜드 동쪽 힐로지역은 전형적인 열대기후로 연평균 강수량이 3000mm 이상이지만 섬의 서남부지역은 연평균 강수량 500mm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쪽이라 해도 중산간쪽은 시원하고(평균 21~25도) 구름이 자주 끼어 강수량이 많아 커피 농사에 최적의 기후 모습을 보입니다. 여행하기에 알맞은 복장은 여름 대비 복장입니다. 하지만 유명한 마우이섬의 할레아칼라 산 정상(3055m)일출을 보려고 하거나 빅 아일랜드의 마우나케아 정상(4205m)에서 쏟아지는 별들을 관측하려 한다면 -1 ~ 5도 이하로 내려가는 온도에 대비할 수 있는 복장이 필수입니다.

* 화산 관광과 해양 스포츠

하와이는 활화산 활동을 근접관찰 할 수 있는 세계에서 귀한 장소입니다. 빅 아일랜드 관광의 하와이 화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두 개의 활화산 마우나 로아 (세계에서 가장 큰 활화산, 1984년 분출)와 킬라우에아 Kilauea (현재 분출 중)화산에서 생생한 지질 변화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서핑(파도타기), 바디보딩, 스노클링, 카약킹, 패들링 등 다양한 해양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서핑을 초보자가 기초부터 배울 수 있는 곳은 와이키키 해변이며 하와이 각 섬 곳곳 혼한 비치 파크에서 어디서나 스노클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카약킹과 패들링은 조금 찾는 사람이 많은 해변이라면 쉽게 대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치 파크마다 간이 샤워 시설(야외)과 화장실, 식탁 등이 준비되어 여행자와 현지인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2. 하와이에서 어떻게 먹을까요?

■ 하와이의 음식

아메리칸의 기본 음식인 샐러드, 스테이크, 버거, 빵은 미국이라 당연히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섬이라서 참치류(하와이명 Ahi, Ono), 전갱이류(하와이명 mahi-mahi)등이 많이 잡히고 이 생선으로 만든 피시&칩스도 흔히 볼 수 있는 요리입니다. 식당의 요리 한 가지의 양이 조금 많아서 1.5인분 정도 되는데 15달러~20달러선입니다.

그 외 하와이만의 독특한 지역 음식 품이 있습니다. 하와이의 폴리네시아 전통 음식과 아메리칸 음식, 100여년 전부터 정착한 이민자들이면서 현재 하와이 인종 구성의 주류인 일본과 한국계, 중국계 음식등 다양한 음식 문화가 섞여 비빔밥 문화가 되었습니다.

- * 하와이 관광청의 가이드 정보는 <http://int.gohawaii.com/kr/statewide/guidebook/>
- * 김치에 쓰이는 양념 비슷한 무침 방법을 Kimchee 라고 부릅니다. (하와이식)
- * 일본식 간장 무침은 Teriyaki입니다.
- * Bento는 도시락 같이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plate?
- * Kalbi 는 Korean BBQ로 알려져 있지만 하와이안 전통식으로도 인식됩니다.
- * Sashimi, Sushi는 일본식과 거의 동일합니다.



▲ 오아후 알라모아나 쇼핑몰 포케 인 더 박스



▲ 빅아일랜드 힐로 지역 수이산의 포케

양념 해물 무침인 포케(Poke)는 대형 슈퍼에도 포케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로 인기인데

간장 양념을 베이스로 한 데리야끼(Teriyaki), 김치 스타일 젓갈 양념장 김치(KimChee) 포케가 자주 보입니다. Kimchee는 이미 ‘김치 양념의’ 라는 의미의 일반명사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Kimchee Crab 은 김치양념의 게 반찬인데 사실 양념게장과 흡사합니다.

포케 재료로는 참치(Ahi), 새우, 가리비, 새조개, 랍스터, 게, 맛살 이외에 오이, 양파절임도 있습니다. 포케 음식점에 가서 원하는 포케를 고르면 밥 위에 듬뿍 회덮밥을 만들어주는데 보통 밥에 포케 1종류가 8달러, 두 종류를 얹으면 11~12달러 선입니다. 두 종류를 얹으면 거의 1.5인분 정도가 됩니다.

하와이안들에게 인기 많은 로코모코, 스팸 무수비는 이민자, 하층민의 애환이 있는 음식입니다. 태평양함대 미군 보급물자로 지급된 스팸통조림이 민간에 유통되면서 나온 음식이니까요.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미군부대에서 나온 고기 찌꺼기로 만들었던 존슨탕이 현재 부대찌개라는 대중식이 되어 있는 것과 꼭 같군요.

밥 두 덩이에 햄버거 패티나 스팸을 얹고 계란을 덮어 그레이비소스를 뿌려 내는 것이 기본인 로코모코, 스팸을 구워 간을 한 밥에 올려 김으로 띠를 두른 스팸 무수비는 전형적인 정크푸드지만 하와이안들에게 무척 인기가 있습니다. 로코모코의 원조인 [cafe100](#)(빅 아일랜드 힐로 지역)은 일본계 이민자에 의해 1946년 설립된 전통 있는 음식점인데 이곳의 로코모코 역시 모양으로 보면 영락 없는 정크푸드입니다. 이런 하층민의 애환을 담아내는 듯한 음식이 전통적으로 가장 인기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괜히 가슴이 짠했습니다.



▲Cafe100의 로코모코



▲ 스팸 무수비

초밥과 캘리포니아 롤도 대형 슈퍼는 물론, 지역 곳곳 어디에나 있는 ABC스토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즉석음식이라서 여행 중 음식 걱정은 전혀 없다고 해도 됩니다. 하와이 빅 아일랜드에 살고 있는 누나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하와이 사람들은 먹는 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 거나하게 차려서 맛나게 먹지. 먹는 건

하와이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부분이야.”

■ 맛있는 음식점

※ 인기 음식점 검색 사이트 엘프 <https://www.yelp.com>

* 빅 아일랜드

- * 수이산 피시 마켓 Suisan Fish Market (포케, 빅아일랜드 힐로)
- * Poke to your taste (포케, 빅아일랜드 힐로), * Da Poke shack (포케, 빅아일랜드 코나 지역)
- * Hilo Farmer's market (힐로의 원주민들이 여는 과일시장)
- * KTA Supermarket (빅아일랜드 곳곳의 로컬 마켓. 즉석 음식, 특히 포케와 빵이 맛있다)

* 마우이

- Leoda's Kitchen and Pie Shop (디저트용 파이. 비싸지만 멋지다)
- Mana foods (파이아 시내의 유기농, 채식주의자를 위한 슈퍼마켓)
- Rodeo General store (마카와오 시내의 작은 슈퍼마켓. 음식이 맛있다)



◀ 오아후섬 노스쇼어
카후쿠지역
후미스 새우트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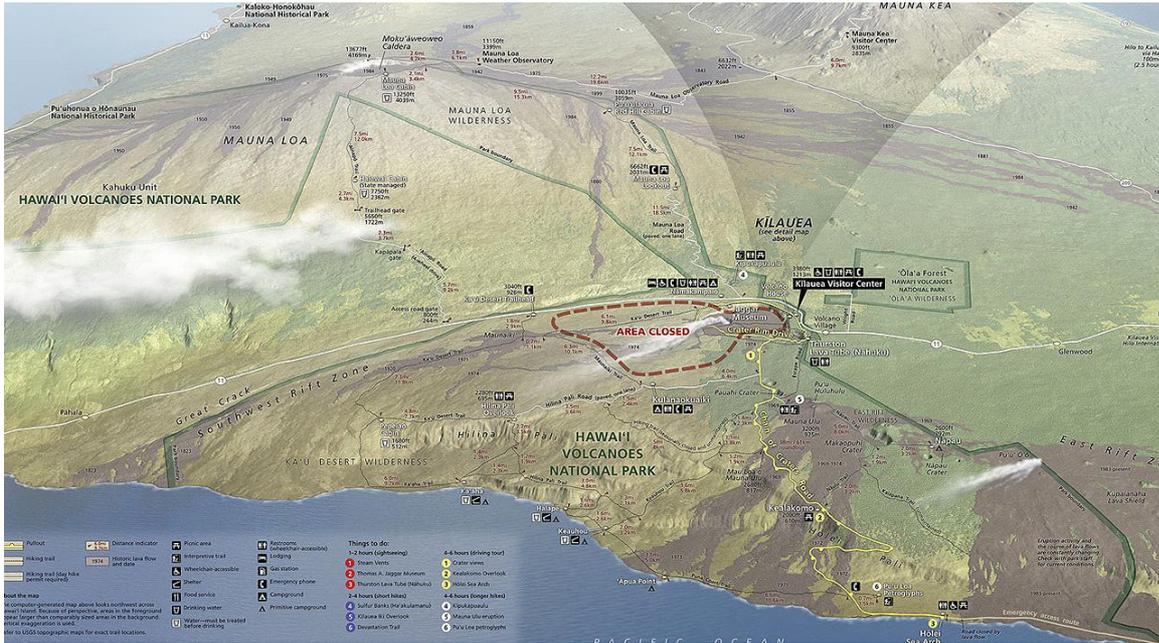
* 오아후

- California Pizza Kitchen (와이키키. 번호표 받고 먹는 피자점)
- TED's Bakery (북쪽 노스쇼어 선셋비치. 지역민의 사랑을 듬뿍 받는 베이커리)
- Poke&box (알라모아나 푸드코드)
- Fumi's kahuku shrimp (카후쿠 지역. 중국식, 새우트럭 중 최고!)

3. 하와이 화산 국립공원(Big Island)

■ 활화산 관측 - 킬라우에아 화산 할레마우마우 분화구

※ Volcanoes NP : <https://www.nps.gov/havo/planyourvisit/maps.htm>



▲ 하와이 화산 국립공원 지도

빅 아일랜드에는 활화산 두 곳이 있는데, 4169m의 마우나 로아는 1984년 분화한 뒤 현재는 활동을 쉬고 있으며 1222m인 킬라우에아 산은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동 중인 화산입니다. 무려 지름이 6km인 킬라우에아 칼데라 안에 있는 할레마우마우 분화구에서는 때에 따라 노랗게 빛나는 용암을 볼 수 있습니다. 전설 속에는 이 분화구 안에 불의 여신 펠레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여신은 애니메이션 모아나에서 테 카 로 표현됩니다. 현재는 화산에서 나오는 유독가스로 인해 칼데라 주변을 도는 도로가 폐쇄되어 몇 곳의 전망대에는 가지 못합니다.

할레마우마우 분화구를 관측하는 곳은 재거박물관 관측소입니다. 화산학자이며 미국 화산 관측소 설립자인 토마스 재거의 이름을 딴 이 박물관은 불의 여신 할레에 관련된 자료와

화산 관련 자료를 전시합니다. 옛날 화산이 더욱 활발히 활동했을 때 빅아일랜드 원주민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을지 박물관 안의 그림으로 어느 정도 느껴집니다. 불의 여신 펠레의 꼬인 머리는 용암대지의 용암이 흘러 나오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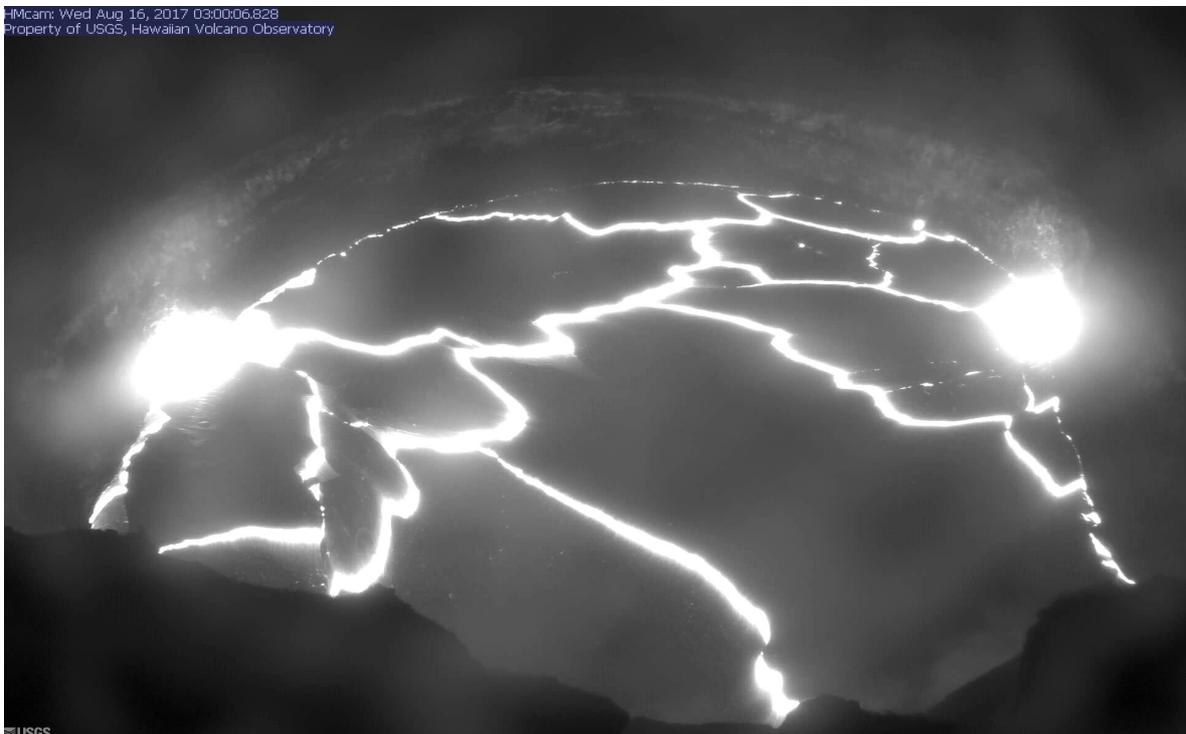
화산의 분출



불의 여신 펠레

하와이안 볼케이노 관측소 웹사이트에서는 실시간으로 관측한 웹캠을 공개합니다. 특히 분화구 바로 위에서 찍은 웹캠이 실감나는군요.

(<https://hvo.wr.usgs.gov/cams/panorama.php?cam=HMcam>)



▲ 2017년 8/16일 새벽 3시 분화구 상태

■ 용암 관측

킬라우에아 화산의 용암은 지하로 흘러 하와이 남부 해안으로 이동합니다. 해안에 가까워진 용암은 산 기슭에서부터 군데 군데 모습을 드러내며 바다까지 이동한 용암은 바다로 떨어져 자욱한 구름을 만들어냅니다. 지구 과학의 살아 있는 교과서라 할 이런 광경을 관측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서 전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자동차로 칼라파나까지 오면 주차요원들이 주차를 도와줍니다. 거기서부터 자전거를 빌리거나 도보로 용암 분출지까지 5.6km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황량한 용암 대지를 온 몸으로 느끼며 자전거하이킹이나 걸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그들이 없어서 걷기에 무척 힘들 것 같은데도 대단하군요. 용암 관측지에 가까이 가면 자전거를 세울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해안가 용암 관측지까지는 10분, 붉은 용암 관측지까지는 1시간 정도 걸어야 합니다.

붉은 용암을 관측하기에는 빛이 없는 밤이 좋기 때문에 해가 진 후 찾아가는 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안전요원도 없고 관측지까지 가는 안내선도 없으며 랜턴에 의지하여 1시간 정도 광활한 용암대지를 걸어가야 하니 사람들이 그나마 많이 다니는 시간대인 초저녁이 알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용암에 매료되어 조금 늦게 나오는 바람에 멀리 자전거 주차지의 불

빛만 바라보며 위험한 모험을 하는 경험을 겪었습니다.

가는 동안 이미 용암을 보고 돌아 오는 사람들과 이런 대화를 합니다.

“얼마나 남았어요?(이미 40분 이상 걸어온 상태)”

“20분 정도 더 가야 됩니다. 하지만 충분히 가 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이곳에서는 바로 발 앞에서 용암이 퍼지고 굳는 것을 볼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지만 자칫 덜 굳은 용암석 위에 올라선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지요? 덜 굳은 용암석은 쉽게 바스라지며 유리같이 갈려 나가기에 트레킹 하기에다 조심스럽습니다.



자전거 주차지에 이런 팻말이 있었습니다.

용암에 대해 경외감을 가지고 고기를 굽는다던가 하는 장난을 치지 마세요.

하지만 역시 신기한 듯, 용암 위에서 마시멜로를 굽는 사람들이 몇몇 보입니다. 용암으로 이런 저런 일들을 해 보는 영상도 있습니다. ([Playing withLAVA](#))

이 화산에서 2014년 6월에 분출한 용암류가 천천히 흘러 2월에 화산 기슭의 파호아 마을에 근접했지만 마을 직전에서 멈췄습니다.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링크](#)).

용암을 관찰하는 또 다른 방법은 화산 국립공원 방문자센터를 지나 남쪽으로 차를 돌려 광활한 용암대지가 만들어 낸 장관을 보며 해안까지 내려와 Holei sea arch에서 도보 트레킹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렬한 태양 아래 왕복 18km의 끝없는 용암대지를 걷는 어려운 길이라 대부분 어느 정도까지 들어갔다가 도로 나옵니다.

4. 마우나케아 산, 할레아칼라 국립공원

■ 마우나케아 산 (빅 아일랜드)



▲ 마우나케아에서 관측하는 밤하늘

빅 아일랜드를 이루는 두 개의 봉우리 중 활동을 쉬고 있는 휴화산입니다. 꼭대기에 천체 관측단지가 있으며 미국,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이외 여러 국가의 천문대가 있습니다. 태평양 한 가운데 있고 해발 고도가 높아 천체관측을 하기에 이상적인 장소로 꼽힙니다. 비지터 센터는 2775m지점에 세워져 있고 천문학자들과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기압에 적응하기 위해 30분 이상 머문다고 합니다. 방문자센터는 비가 오에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센터에 단지 들어가기 위해 사람들은 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간이 교육을 기다리는 줄이겠지 설마 들어가기만 하려는 줄일라고? 하고 직접 물어보니 그냥 들어가기 위한 줄이 맞습니다. 좁은 방문자센터라서 그런가?

방문자센터 위쪽으로 올라가려면 4WD차량이 필요합니다. 일반 차량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렌터카업체에서 보험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정상은 기온이 해안가에 비해 25도 낮으므로 영하의 기온을 견딜 수 있는 옷과 장비를 준비해야 하며 비도 자주 내리기 때문에 비옷도 필요합니다.

■ 할레아칼라 국립공원 정상(마우이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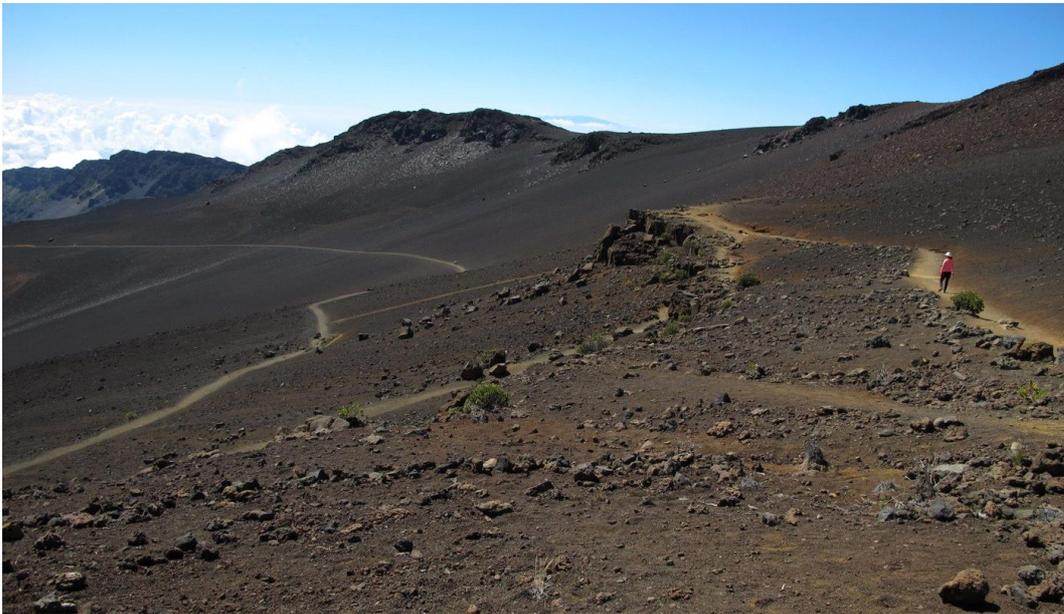
▲ 할레아칼라의 일출

할레아칼라 산 정상 3200m 에 천문대가 있습니다. 일반 차량으로 진입 가능합니다. 이곳의 일출이 엄청나게 멋있다는데 일출을 보기 위해 오전3시부터 오전7시까지 입장하려면 예약을 해야 합니다. 정상의 주차장에 한 번에 150대의 차만 주차가능하기 때문에 제한을 두

고 있습니다. 예약은 60일 전부터 가능한데 하루 120장(주차권)을 먼저 예약 받고 30장은 출입 이틀 전에 예약 사이트를 열어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이들이 예약할 수 있게 합니다. 숫자는 사람 수가 아니라 차의 수를 말합니다.

예약 사이트 <https://www.recreation.gov>

이 시간대가 아니라면 언제든지 차로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황량한 대지의 모습 때문에 화성이나 우주를 주제로 한 SF영화에 단골로 등장하는 곳이고, 간단히 거대하고 멋진 풍광을 즐길 수 있는 트레킹코스들도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5. 바다와 함께

■ 비치파크, 호텔비치 활용

섬의 예쁜 해안가에는 어김없이 비치파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잔디밭, 나무그늘, 사용이 편리한 샤워시설, 탈의시설 (수는 적지만 쓰는 사람이 적어 사용하기에 쉽습니다). 공용 테이블, 벤치, 바비큐화덕 등 비치파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저런 시설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쁘거나 장엄해서 이름난 해변도 있겠지만 하와이 바다는 어디나 그림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해수욕장에서 문득 거북이를 만나 함께 수영하기도 하고 물안경만 있으면 수족관 같이 물고기에 둘러싸여 스노클링도 할 수 있습니다. 백사장에서 물건을 잃어버릴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백사장에 타올 펴고 물건을 놓아두고 수영을 하고 있더군요. 차에다 귀중품을 넣고 잠그고, 너무 좋아 보이는 물건만 백사장에 두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 거북이와 수영했던 카마올 비치 파크. 도시 길가에 있습니다.

멋진 해안가에 어김없이 세워진 호텔들. 하와이 법에 따라 해변을 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도 개방하고 일정 대수의 무료주차장을 운영해야 한다는 게 매력적이었습니다. 물론 주차장은 금방 꽉 차지만, 호텔을 지나야 해변에 가는 경우도 많으니 호텔 부지를 드나드는 것도 자유롭습니다. 호텔 수영장에 “숙박객 이외에는 입장하지 마세요” 팻말이 있는 정도입니다. 일부 호텔은 외진 지역에 있어서 게이트를 통과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해변에 간다고 이야기하면 그냥 보내준다고 합니다. 와이콜로아 비치 호텔에 근무하는 누님의 이야깁니다.



◀ 마우이 파ਿਆ마을
근교 호오키치 비치



◀ 마우이
카어나팔리비치의
블랙락

■ 서핑강습

초보자가 서핑하기에 가장 좋은 곳은 와이키키 해변이라고 합니다. 해안에서 멀리 나가도 바다가 얇고 부드러운 파도가칩니다. 와이키키 해변은 대강 서쪽의 호텔비치, 중앙의 와이키키 비치, 동쪽의 쿠하오 비치의 3구역으로 나뉩니다. 서핑은 어디서나 가능하고 가까운 바다 수영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금 먼 바다에서 시작하네요. 서쪽과 동쪽 비치는 비교적 한산합니다. 중앙 와이키키 비치의 백사장 너무 좁아 놀랐습니다. 모래 질도 무척 나쁘고 음식점이 백사장 바로 앞까지 진출해 있어 번잡합니다. 아름다운 와이키키...는 아니고 재미있는 와이키키는 되겠군요.

서핑 레슨은 와이키키 동쪽 파크쇼어 호텔 1층에 있는 한스히데만에서 받았습니다. 그룹 레슨으로 1인당 75달러. 강사 1명당 4~5명이며 두 시간의 레슨에서 1시간 반 정도 실습합니다. 실습하는 동안 강사가 적절하게 보드를 밀어 주니 파도 위에서 설 수 있었습니다. 첫 날에 네 번 정도 서서 파도를 탄 것 같고 그 이후 이틀동안 보드만 빌려서 같은 해변에서 연습해 봤지만 한 번도 제대로 타지 못했습니다. 몸치인가... 서핑을 배우기 위해서라면 미리 한국에서 정보를 찾아 가면 좋겠습니다. 저렴한 렌탈샵도 많고 레슨 비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 처음 타는 사람은 이렇게



▲ 자유자재인 사람은 이렇게



▲ 바디보딩.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도구



▲ 패들링, 넓은 보드위에 서서 노를 젓는다

오아후섬 북쪽 해안(노스 쇼어)이 서퍼들에게 인기 있는 거대한 파도가 이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패트릭스웨이즈와 키아누리브스가 출연한 영화 ‘폭풍속으로’의 무대가 된 곳입니다. 우리가 갔을 땐 여름이라 잔잔했는데 그래도 반자이 파이프라인이라는 서퍼들의 명소인 해변에 갔더니 바로 몇 걸음만 나가도 갑자기 깊어지면서 파도가 사람을 끌어 삼키는 힘이 대단하더군요. 이곳이 겨울에 10m의 빅웨이브가 이는 서핑의 세계적인 명소라고 합니다.

서핑 말고도 짧은 보드를 배에 밀착시키고 타는 바디보딩, 보드 위에 서서 노를 젓는 패들링, 카약킹 등 다양한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것이 하와이 사람들의 일상입니다.